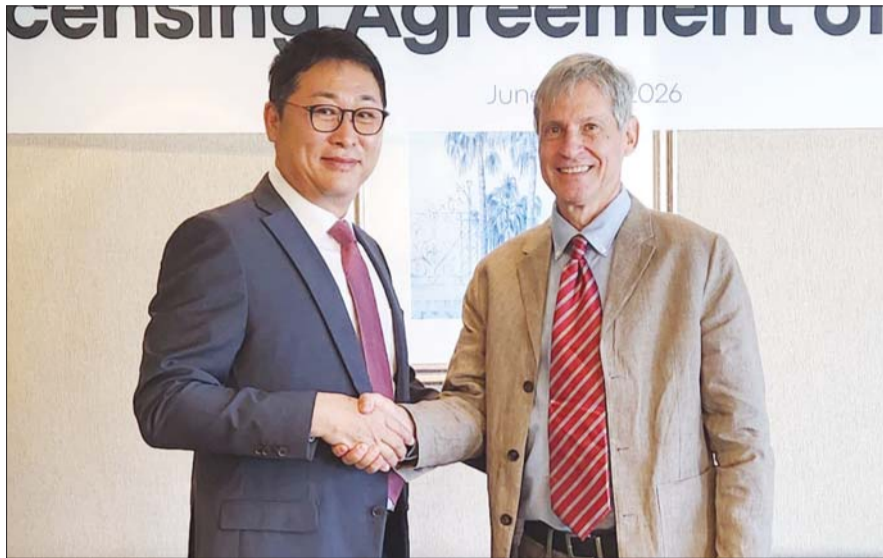


K-지방분해로 복부·팔뚝 다듬는다... '마이크로 뷰티' 격돌

미용의료 다각화

GC녹십자웰빙-라지엘테라퓨틱스 지방분해주사제 라이선스 계약
얼굴 윤곽서 국소부위 지방 감소
메디톡스, '뉴비주'로 선점 나서
출시 2개월 만에 1만 바이알 판매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서
히알루론산 필러 등 제품군 확대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왼쪽)와 라지엘 알론 블루멘펠드 라지엘테라퓨틱스 최고경영책임자(CEO).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미용의료 시장에서 보툴리눔 독소에 이어 '지방분해주사제'로 경쟁을 이어간다. 특히 체중 감량 이후 턱밑, 복부, 팔뚝 등 국소 부위에서 체형을 정교하게 다듬으려는 '마이크로 뷰티' 영역에서 신성장동력을 다진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웰빙은 혁신 제형 도입으로 미용의료 사업을 강화한다.

GC녹십자웰빙은 지난 25일 바이오기업 라지엘테라퓨틱스와 '국소 지방분해주사제'의 한국 사업화에 대한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했다. GC녹십자웰빙이 이번에 도입하는 물질은 차세대 국소 지방분

해주사제다. 단 1회 투여만으로 주사부위의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기전을 갖췄다.

특히 복부, 옆구리, 팔뚝 등 신체 다양한 부위의 지방 감소를 목표로 한다. 기존 지방분해주사제가 주로 턱밑 지방 개선 등 얼굴 윤곽 기술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됐다.

라지엘테라퓨틱스는 미국 임상 2상에서 해당 물질로 단일 시술을 진행해 턱밑, 옆구리 등의 지방 감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GC녹십자웰빙은 미용의료 포트폴리오를 적극 확대해 왔다. 에스테틱 기업 이니비오를 관계사로 인수해 보툴리눔 독신 제제 '이니보'를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고급 스킨부스터 브랜드 '지셀르 리본느'를 새롭게 선보였다. 또 글로벌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GC그룹 측은 "GC녹십자웰빙은 기존 독신, 스킨부스터 등에 비만 치료와 체형 관리까지 더한 종합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툴리눔 독신 전통 강자 메디톡스는 국산 지방개선주사제 '뉴비주' 출시로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이다.

뉴비주는 지난해 9월 제40호 국산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올해부터 국내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뉴비주는 출시 단 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만 바이알을 돌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뉴비주 적응증은 중등증 및 중증 턱밑 지방 개선이다.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인 환자에게 쓰인다. 세계 최초로 콜산을 주성분으로 처방했고 부종이나 멍과 같은 기존 주사제 부작용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동국제약도 미용의료 부문을 다각화한다.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를 출범하면서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독신, 턱밑 지방개선주사제, 스킨부스터 등 제품군을 늘렸다. 특히 스킨부스터 브랜드 마테기엘의 경우 동국제약 독자 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을 활용하고 있다.

동국제약 측은 "기존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신시장을 파고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후발 주자들의 공세 속에서 대웅제약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영

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브이올렛'은 2021년 출시된 국내 1호 지방파괴주사제로, 96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 3상에서 반영구적 지방 파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선두 제품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린 'AMWC CHINA 2025'에서 브이올렛 임상 데이터와 실제 시술 사례를 공유하는 등 브이올렛 글로벌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대웅제약 대표 제품인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 후속 전략으로 브이올렛을 앞세워 K에스테틱의 지배력을 넓히려는 복안이다.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방분해 주사제 시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글로벌 바디 컨투어링 시장은 2025년 약 3조원에서 2034년 약 1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에스테틱 수요가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맞물리며 국내외 미용의료 시장은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CJ올리브영, 성수에 'K-뷰티 생태계' 구축

'올리브영 뷰티 맨션 성수' 공개
뷰티디바이스 체험 '뷰티테크' 구역
글로벌 고객에 차별화 컨텐츠 선사

CJ올리브영이 서울 성수 권역에서 K뷰티 생태계를 확장한다. 기존 혁신 매장 '올리브영엔(N) 성수'를 중심으로 연구장 길에 집중되어 있는 K뷰티 열기를 유기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서울 북성수에서 '올리브영 뷰티 맨션 성수'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매장은 고급 주택을 뜻하는 '맨션'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연면적 약 500평 규모의 4개 층으로 구성됐고 층별 공간을 여러 방으로 꾸몄다. 아늑한 저택의 분위기 속에서 K뷰티 브랜드를 탐색할 수 있다.

1층 입구에는 슌인숍, 팝업 등을 배치해 성수 상권에 별도 매장이 없는 입점 브랜드들이 신제품과 브랜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2층과 3층에는 각각 색조와 스킨케어 서비스를 설치했다. 전문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뷰티를 제공한다.

'뷰티테크' 구역은 새롭게 마련됐다. 글로벌 선호도가 높은 뷰티 디바이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지를 진단해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과학 기반 더마뷰티도 고도화해 의료 관광 수요를 정조준한다.

현재 성수는 고도화된 K뷰티를 체험하려는 글로벌 관광객들이 모이는 핵심 상권이다. 올리브영은 이번 뷰티 맨션을 통

해 성수 상권 전반에서 K뷰티 흐름을 활성화하는 한편 글로벌 고객들에게 한층 차별화된 'K컨텐츠'를 선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뷰티 맨션 4층은 뷰티 서적과 LP 전용 공간을 갖췄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뷰티 맨션은 글로벌 팬들이 극대화된 K뷰티를 경험하는 총 집합소인 동시에 입점 브랜드에게는 외국인 고객과 교류하는 접점이 될 것"이라며 "성수 곳곳에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면서 성수 전체가 상생하는 개방형 K뷰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서 2024년 개점한 '올리브영N 성수'도 이미 국내외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핵심 기지로 성수에서 K뷰티 성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애경산업, 대학생 멘토링 '국인' 후원

'국인 글로벌 멘토링 발대식' 참여

애경산업이 미래 세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섰다.

애경산업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국민 글로벌 멘토링 발대식'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 대학생 교육 봉사 단체다. 국가적, 국제적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재일동포 3~4세 학생들을 지원한다. 글로벌 멘토링을 진행해 한국 대학생과 재일동포 학생이 교류하며 한국어를 확산하고 한국 문화를 공유한다.

애경산업은 여러 해에 걸쳐 국민 글로벌 멘토링 활동을 후원해 왔다. 재일동포 학생들에게 고국의 정을 전하고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한국 대학 진학을 희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7회 국민 글로벌 멘토링 발대식'이 열렸고 애경산업은 공식 후원하기로 했다. /애경산업

망하는 재일동포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진학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제17회 국민 글로벌 멘토링에는 100명의 대학생 멘토가 참여한다. 오는 7월 8일부터 오사카 금강학교를 시작으로 오사카 건국학교, 교토국제학교, 나고야한국학교, 시즈오카단단 등 일본 내 학교 및 기관에서 약 1000명의 재일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펼친다. /이청하 기자

SK케미칼, MASH 신약 후보물질 개발 박차

(대사이상 지방간염)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과 공동개발

SK케미칼이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과 협력해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 신약 후보물질 'J2H-1702' 개발을 본격화한다. 양사는 'J2H-1702'의 국내외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앞서 지난 3월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과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J2H-1702 실사를 진행해 기술적, 사업적 가능성을 검토했다.

J2H-1702는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이 독자 기술로 자체 발굴한 경구용 11β-HSD1 저해제다. 11β-HSD1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의 대사에 관

여하는 효소다. J2H-1702는 이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코르티솔 과활성을 조절해 지방 축적, 염증, 섬유화 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은 J2H-1702 임상 2a상을 완료했고 양사는 향후 국내외 임상과 개발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재선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대표는 "J2H-1702 국내외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SK케미칼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SK케미칼과 함께 J2H-1702의 가치를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선 SK케미칼 사업 대표는 "MASH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영역 중 하나로 실사를 통해 J2H-1702의 경쟁력과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



최근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USA 현장에서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정기원 부사장과 SK케미칼 박현선 사업 대표(오른쪽)가 'J2H-1702'의 국내외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의향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케미칼

다"며 "앞으로도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질환 영역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김지윤 생건마케팅부문장 선임

뷰티 브랜드 마케팅 이끈 전문가

동화약품이 뷰티 및 건강기능식품 부문 전문성에 바탕을 둔 인사를 단행한다. 동화약품은 신임 생건마케팅부문장에 김지윤 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생건마케팅부문은 생활건강본부 산하에서 뷰티마케팅팀과 건강식마케팅팀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김지윤 이사는 다년간 뷰티 업계에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BM)을 이끌어온 전문가다. 2008년 LG 생활건강 색조BM 파트장으로 시작해 셀트리온스킨케어, 에이블씨엔씨 미샤 등을 거쳤다. 색조부터 스킨케어까지 폭넓은 카테고리리를 담당해 왔다. 2020년에는 중



근당건강 화장품사업 부문 이사로 합류해 제약 업계에서 화장품 사업을 이끌었다.

김 이사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2018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화장품 상품기획 전략과정 집필에도 참여한 바 있다.

김지윤 이사는 "129년 역사의 동화약품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생건마케팅 부문을 이끌겠다"며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뷰티 제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